1961.1

100만톤의 알곡 증산을 도와

평남 강서군 태성 중학교 단 제 3분단 동무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나선 태성 농업 협동 조합 제 1 작업반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나섰다.

(사진 상) 랭상모 판 문짝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는 분단 동무들.

(사진 중) 동무들은 랭상모 판에 쓸 나래 엮는 일도 돕고 있다.

(사진 하) 분단 동무들은 자급 비료 생산과 거름 내기도 돕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1호 내용

로동당은 우리의 등대

송 영

아침 노을이 비낀다.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의 찬연한 황금 빛 섬광으로 하여 삼천리 강토는 붉게 붉게 물 드는 것인가!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 동안에 완수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창조의 천리마 기상이 나래치는 이 땅에 새해의 태양이 힘차게 힘차게 솟아 올랐다. 새 승리 새 희망에 들끓는 이 아침에 간고한 투쟁에서 승리한 충직한 우리 인민들이 당이 펼쳐 준 7개년 계획의 높은 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쌍마의 고삐를 튼튼히 잡고 뜨거운 심장으로 당을 노래하며 경애하는 수령에게 다함 없는 새 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인민들은 로동당이 령도하는 새 시대에 와서만 참된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조국의 모든 곳이 생활의 락원으로 되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조국 산천의 전야, 마을, 학교, 공장, 그 어디를 막론하고 손'금 보듯이 보살피며 지도하여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다시 한번 그이에게 삼가 만수 무강(존경하는 어른에게 건강을 바라는 말)을 축원하며 그이의 충직한 전사가 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조국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기둥인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도 다 같이 붉은 넥타이를 단정히 하고 당과 경애하는 수령님께 새 해의 세배를 드리자.

해방 후 당의 품에서 열 여섯 번 새 해를 맞이해 온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1961년도의 새 해 아침을 맞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은 참된 자식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 길러 준 자애로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충성심으로 하여 더욱 세차게 설레이고 있다.

그것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우리의 수령께서 우리 인민을 항상 새로운 행복과 승리에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난 날 기술의 문명으로 부터 뒤 떨어져 있던 우리 인민들이 오늘은 자기 손으로 현대적인 기계와 설비들을 척척 만들어 내며 세계 최대의 비날론 공장도 건설하는 기술의 주인으로 되였다.

지난 날 해마다 가물과 수해의 피해를 받으면서 락후한 농기구로 농사 짓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협동 조합의 한 가정에 모여서 기계로 농사를 짓는 사회주의 농촌의 주인으로 되였다. 지난 해 대 풍작을 가져오게 한 것도, 또 협동 마을 문화 주택의 집 집 마다가 쌀더미로 하여 지붕을 가리우게 된 것도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대지를 갈아 엎는 1만 4백 대의 뜨락또르, 무수한 자동차, 불도젤, 파종기, 수확기… 이 모든 기계들이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 주고 있고 실'줄과 같이 뻗어 나간 관개 물'줄기와 전기망으로 뒤덮인 우리 전야이니 금년에도 또 얼마나 큰 풍년이 깃들것인가! 지난 해 보다 100만 톤의 알곡이 더 생산될 것이니 농민들의 생활이 또 얼마나 더 향상되겠는가. 그러니 어찌 당과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들이 설레이지 않겠는가. 오늘에 우리 인민들은 모두 자기 일터를 갖고, 먹고, 입고, 사는 데 근심 걱정 없이 오로지 조국의 번영과 자신들의 행복한 앞 날을 위해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면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부터 시작되는 7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그때의 우리 나라는 얼마나 더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또 얼마나 더 행복해 지겠는가.

가는 곳 마다에 더 많은 공장, 광산, 발전소들이 일떠서고 비날론, 나일론을 비롯한 각종 옷감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질 좋은 일용품들과 식료품들이 얼마나 많아 지겠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가!

조국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기둥인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는 실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해방된 그날 부터 당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상 청 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셨다.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 시기에 제일 먼저 학교를 지여 준 것도 동방 최초의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머지 않아 기술 의무 교육제 까지 실시하게끔 해준것도 다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배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랑랑한 웃음 소리 높은 교실에도, 즐거운 야영 생활의 나날에도, 과학 탐구의 길에도 당과 수령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수령님께서는 학교의 위생 문화 사업은 어떻게 하며, 벽보는 어디에 걸며, 기술 크루쇼크들의 운영 방법, 영화 감상회의 조직, 소년단 모임, 강당의 리용, 지어는 점심 식사 조직에 이르기까지 일일히 현지에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셨다.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그 넓고 자애로우신 품에 동무들을 따뜻이 껴 안아 주신다.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우리들인가!

당과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랜 전날부터 오늘의 사회주의 락원을 내다 보시였고 그를 위해 15여 성상에 걸치는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시였던 것이다.

15여 성상에 걸치는 어려운 항일 빨

쩌산 투쟁 시기에도 수령님께서는 아동단을 나라의 희망이며 꽃봉오리로 여기고 사랑하셨고 항상 그들을 가까이에 두시고 친히 훈련하고 교양하시였다. 화룡, 연길, 왕청 등 지대에 왜놈들의 토벌이 있었을 때에 집을 잃고 헤매는 600 여명의 아동들을 유격 근거지 안에 보호케 하고 햇솜을 두고 광목에 푸른 물을 들여서 매 아이에게 옷을 지여 입히게 한 것도 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이였었다. 그리고 수령님의 전사들인 유격대원들은 몇 끼를 굶으면서도 아동들에게는 식사를 공급해 주셨다. 이처럼 어버이와 같은 사랑 속에서 자란 아동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유격대를 도와 용감히 싸웠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에누리 풀을 손에 쥔채 굶어서 죽으면서도 유격 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싸운 아동단원들과 왜놈들을 쳐 부시고 돌아 온 유격대 아저씨들을 위안 공연하기 위해 《총동원 가》를 부르다가 여러 끼를 굶은 탓에 그만 쓰러진 열 두살 난 리 숙희 소녀와 같은 수 많은 아동단원 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전체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은 우리 당을 가슴으로 받들며 자기 운명을 서슴 없이 당에 맡기고 있다. 그 까닭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 로동당만이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 주는 등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국 남녘 땅의 형제들과 청소년들은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 주신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회의 제 2기 제 8차 회의의 편지와 의견서를 높이 받들고 한결 같이 투쟁의 길에 떨쳐 일어서고 있다.

소년단원 동무들! 수 백만의 류랑 고아들이 깡통을 차고 헤매고 있는 남녘 땅의 청 소년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방해하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을 이 새 해 아침에 한층 더 높이자. 미제는 우리 조국 남녘 땅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한다. 그리하여 조국은 평화적으로 하루 속히 통일되여야 한다. 일터가 없고 농사 지을 땅이 없어 거리와 마을을 헤매는 남조선의 수 많은 실업자들과 류랑 농민들에게 하루 속히 일터를 주고 땅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며 배우지 못하고 있는 수 많은 남반부의 어린이들도 동무들과 어깨 나란히 학교에 다니도록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은혜로운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 안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소년단원 동무들! 새 해 아침에 우리의 등대인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님에게 다시 한번 붉은 마음을 다지자. 그리고 모두가 다 당의 충실한 아들 딸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붉은 전사로 되기 위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올해에도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천리마를 타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자.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지금 우리 나라 방방 곡곡 그 어디를 가나 지난 해 12월에 있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7 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61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넘쳐 실행하기 위해 나선 근로자 아저씨들의 힘찬 로력 투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7 개년 계획의 첫 3년 동안에 해야 할 방향에 따라 이미 이룩해 놓은 중공업을 잘 꾸리고 그를 옳게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보다 잘 먹고 잘 입도록 하는데 온갖 힘을 기우리게 됩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려면 알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금년에 농촌에다 온갖 힘을 기우려 지난 해 보다 100만 톤 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 할 것을 전 당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100만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하자면

첫째로, 새 땅을 더 얻어 내며 땅을 잘 가꾸며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우리는 10만 8천 정보의 새 땅을 얻어 내며 1만 6천 정보의 밭을 논으로 만들며 소석회나 카바이트 재 또는 니탄 같은 것을 많이 내서 땅을 개량해야 합니다. 또한 2모작, 간혼작 (사이사이에 곡식을 섞어 심는 것) 등으로 땅을 더 잘 리용해야 합니다. 논 두렁 밭 두렁 할 것 없이 한 치의 땅도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농촌에서 곡식을 많이 내자면 기계화를 더욱 빠르게 해야 합니다. 씨뿌리기, 김 매기, 거두어 들이기에 이르는 힘든 모든 농사 일들을 더 많이 기계의 힘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나라에서는 2,900대의 큰 뜨락또르와 4,600대의 작은 뜨락또르, 1,000대의 자동차를 농촌에 보내게 됩니다. 금년 중으로 평남도와 황남도, 평양시에서는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세째로는 선진 영농 방법을 쓰며, 벼나 옥수수 처럼 소출이 많이 나는 곡식들과 콩을 많이 심으며 량강도, 함북도 같은 산간 지대에서는 그 지대에 맞는 감자를 많이 심고 서해안 평지대에서는 고구마 면적을 늘쿠어야 합니다.

알곡을 더 많이 내자면 논 밭에 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급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 내며 나라에서는 화학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 보내 줍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평야 지대에서는 정당 5톤 이상의 벼와 4톤 이상의 옥수수를 내며, 산간 지대에서는 4,5톤의 벼와 2,5톤~3톤의 옥수수를 내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업과 공예 작물 생산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합 공동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집집에서 돼지 2마리, 토끼와 닭을 각각 10마리 이상 씩을 기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10만 정보의 과수원을 늘쿠는 일을 모두 끝내게 됩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경공업에서는

첫째로, 옷감, 신발을 비롯한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의 수량과 가지수를 늘쿠며 그 질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방직 공장들에서는 갸바진, 포푸린

같은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짜 내며 금년에 현대적 기계를 갖춘 방직 공장, 아마 공장들도 새로 건설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에 염화 비닐로 만든 질 좋은 비옷, 가방, 구두 등 그 밖의 일용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료품 가공 공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기름을 더 많이 짜 내며 더 맛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수산업에서는 80만 톤 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운동을 전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생선과 맛나는 각종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보내 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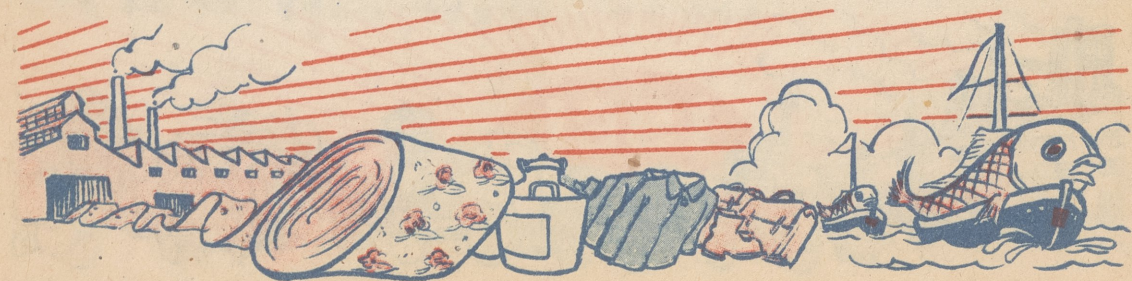
금년에 우리 나라 중공업은 우에서 말한 농업과 경공업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만들어 보내는 데 모든 힘을 기우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농촌에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며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대 주기 위한 화학 공업 발전에 힘을 기우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날론 공장 제 1 계단 공사를 5. 1절까지 끝내며 금년에 과염화 비닐 공장, 나일론 중간 공장 건설도 준비하게됩니다.

그리고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며 전기, 석탄, 강철 강재, 쎄멘트 등을 더 많이 생산해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 총 생산액을 116%로 높이게 됩니다.

금년도의 계획을 성과 있게 실행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한 톤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쪼박의 종이라도 절약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더 많은 생산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신비스럽게 여기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힘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기계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도 그 어디에서나 천리마 운동을 더욱 널리 전개하여 힘차게 앞으로 내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당은 금년도 100만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농민들 뿐 아니라 로동자, 사무원, 청년 학생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써 나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들도 7 개년 계획 실행에 나선 근로자 아저씨들과 발 맞추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힘껏 도와 나섭시다.

학습과 생산 로동으로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나지면서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필요한 퇴비 모으기, 랭상 모판용 종이 모으기, 새 땅을 얻어 내는 일, 토지를 개량하는 일을 도우며 한 치의 땅도 묵이지 않고 피마주, 해바라기를 심으며 포도원을 가꾸는 일등을 잘 해나갑시다.

그리고 금년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더 많은 토끼와 닭을 치며 특히 앙고라 종 토끼를 많이 기르기에 힘씁시다. 앙고라 종은 털을 많이 내므로 우리 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바'다가의 소년단원들은 금년에 80만 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온갖 힘을 다해 도와 드립시다.

금년도에도 우리는 파지, 파고무, 파유리, 누더기들을 모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전기를 절약하며 한장의 종이와 연필이라도 아껴 써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 합시다. 그리고 금년에도 꼬마 지질 탐사대의 역할을 높여 사금을 캐는 일에 떨쳐 나섭시다.

끝으로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을 높여 7 개년 계획의 첫 전투에 나선 근로자 아저씨들의 힘찬 투쟁을 고무해 드리며 우리들의 학습과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 모범 분단 및 모범 소년단 단체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나섭시다.

민청 형님들의 뒤를 따라 씩씩하게 배워 나가자

올해 민청 형님들은 영광스러운 민청 창립 열 다섯 돐을 맞이 합니다.

민청은 1946년 1월 17일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창건 되였습니다.

민청이 창건된 력사는 비록 15년 이지만 그의 뿌리는 이미 1930년 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마련 되였습니다.

민청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항일 무장 투쟁시기에 김 일성 원수님이 직접 지도하신 청년 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이어 받고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항일 무장 투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공청을 조직하여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청년들을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을 찾는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청년 운동의 고귀한 경험을 이어 받아 창건된 민청은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지난 15년 간 자기를 낳아 길러 준 당과 수령 앞에 무한히 충직하였습니다.

해방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민청은 로동당의 가르침 따라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 개혁을 실시하는 투쟁에서와 나라의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민주 기지를 다지는 투쟁에 자기의 온갖 힘을 다해 당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민청 형님들이 당과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자기들의 끓어 넘치는 충성심을 남김 없이 발휘한 것은 또한 간악한 원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였습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그 더러운 침략의 발'길을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들여 놓았을 때 민청 형님들은 당의 부름을 받들고 앞을 다투어 원쑤를 쳐부시는 전선에로 달려 나갔습니다.

민청 형님들은 사랑하는 조국의 고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까지 다 바쳐 용감히 싸웠습니다.

자기의 피 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은 리 수복, 박 원진 영웅들, 민청호 중기 사수 조 군실 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 형님들의 이름과 위훈은 우리 조국의 력사와 함께 길이 빛날 것입니다.

민청 형님 누나들은 후방에서도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전선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 식량을 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적 비행기의 맹 폭격에도 굴하지 않고 전선에 더 많은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싸우다가 영용하게 희생된 함흥 기관구 기관사 안 성국 영웅 형님의 위훈만해도 잘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군대가 전략상 일시 후퇴한 어려운 시기에도 수 많은 민청 형님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로동당원 아저씨들의 지도 밑에 빨찌산과 청년 근위대에서 원쑤와 용감히 싸워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았고 당에 의해 교양된 조선 청년의 영예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세계에

서 《가장 강대하다》고 떠벌리던 미제 침략자를 때려 눕히고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 냈습니다.

항상 당과 조국과 수령 앞에 충직한 민청 형님들은 정전 후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힘 들고 어려운 일의 앞장에 나서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또 세우고 있습니다.

민청 형님들은 당의 부름을 받들고 청년 개발자의 영예를 안고 송남 탄광으로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바다의 정복자로 앞을 다투어 달려 나갔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빈 터에다 천막을 치고 없는 것은 찾아 내고 적은 것은 만들어 내면서 송남 탄광을 개발하였고 독로강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오늘은 허천 광산과 강계 청년 발전소를 맡아 힘차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물 속에 뛰여 들어 가물매기 공사를 불과 수십일에 해 낸 독로강 발전소 건설장의 민청원 형님들의 위훈, 공기가 희박해서 숨 막히는 굴 속에 솔 잎을 물고 들어 가 굴을 뚫려 일제 시대 같으면 몇 해가 걸려야 할 해주—하성, 평산—지하리 간 철도 공사를 불과 몇 달 동안에 해낸 이야기, 당의 부름을 받들고 1년에 무려 325일 동안을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인 김 책 수산 사업소 민청호(자망 71호) 민청 형님들 그 밖에도 농촌 가는 곳 마다에 뻗어 나간 관개 수로들과 청년 제방등 민청원 형님 누나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민청원 형님 누나들은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야 하며 미래의 주인답게 새 것을 창조하며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용감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받들고 공장에서 농촌에서, 바다에서 철도에서 건설장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용감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우리의 앞 길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며 새 것을 용감하게 받아 들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천리마 운동에서도 항상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앞장 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채탄장에서 한 달 동안에 1만 톤의 석탄을 캐 낸 아오지 탄광 로력 영웅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형님들의 뒤를 이어 한 달 동안에 무려 2만 3천 톤 수준을 돌파한 신창 탄광 민청원 형님들, 지난 날 우리 나라에서는 만들 엄두도 못 내던 8m 타닝반과 3천 톤 프레스를 불과 몇달 동안에 만들어 내는 데 위훈을 떨친 룡성 기계 공장 로력 영웅 주 성일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형님들, 자기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들고 뒤 떨어진 작업반으로 내려 가 그를 또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든 평양 제사 공장 로력 영웅 길 확실 누나를 비롯한 민청원 형님 누나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역시 그지 없습니다.

이처럼 당에 충직한 민청원 형님들은 언제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 당의 정책을 반대하며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원쑤들과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투쟁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과 최 창익, 박 창옥등 그 밖의 반당 종파 분자들을 쳐 없애고 당을 지키는 투쟁에서도 민청 형님들은 당에 충실하였습니다.

실로 민청 형님들은 언제 어떤 사나운 풍파가 휘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신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튼튼히 지키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기의 온갖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 모든 투쟁을 통해 민청은 튼튼히 단련 되였으며 창건 당시 25만 명으로 부터 오늘은 200 여 만의 청년들을 묶어 세운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방조자로 자라 났습니다.

그리하여 민청 대렬 속에서는 수 많은 로동당원들과 국가 일'군들이 자라 났습니다.

오늘도 민청 형님 누나들은 당이 주는 임무라면 물 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들어 그를 끝 까지 해내며 당을 해치려는 어떠한 원쑤들과도 용서 없이 투쟁하며 당을 튼튼히 지켜 낼 결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민청 형님 누나들은 혁명 전통 학습과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쌓아 자기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청산리 정신과 방법으로 일하며 생활하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회의 결정과 그를 실천 하기 위한 민청 중앙 위원회 12차 전원 회의의 결정을 받들고 7개년 계획의 첫 해인 금년도 100만 톤의 알곡 증산과 80만 톤의 물'고기를 더 잡으며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일용품과 식료품을 보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민청은 당의 위임에 의해 소년단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은 민청의 교대자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민청 형님 누나들의 뒤를 따라 훌륭한 민청원이 되며 장차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는 것을 더 없는 영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민청은 소년단원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교양하며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아동단의 모범으로 꾸준히 교양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우리 당의 어린 붉은 전사로 키워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 소년단은 160만의 소년들을 묶어 세운 붉은 어린이들의 대렬로 튼튼히 자라 났습니다.

이미 소년단에서는 안주 탄광 소년 근위대와 선천 애육원 소년 근위대, 강원도 안변 피끝새 소년 빨찌산의 어린 애국자들을 비롯하여 서강렴, 한 영국 등 수 많은 어린 애국자들과 박 원진, 리 수복 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민청원들을 키워 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소년단에서 자란 훌륭한 민청원들로서 민청 대렬은 부단히 보충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워 그처럼 조국을 사랑하며 당과 수령 앞에 충직한 어린 붉은 전사가 됩시다.

그러자면 모든 동무들이 소년단원의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소년단 생활에 더욱 충실히 참가하며 조직이 주는 위임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해 내는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동단원들 처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원쑤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자기를 꾸준히 단련하며 조국 앞날의 쓸모 있는 일'군이 되기 위해 소년단원의 으뜸가는 임무인 학과 학습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일하는 민청 형님들처럼 로동을 사랑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기 위한 일에서도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합시다.

(1) 지주놈에게 소작 땅마저 빼앗기고 살'길이 막힌 김충진 형님네 삼 형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1926년 고향 땅 (함북 경성군 주을)을 떠났다. 왜놈들과 지주 놈들의 시달림을 받다 못해 사랑하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충진 형님은 설음과 분함이 북바쳐 두 주먹을 틀어 쥐었다.

(2) 동북 연길현 소연집강구 태암촌에 온 형님네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서도 지주의 땅을 빌어 온 식구가 뼈 빠지게 일을 했으나 피땀이 스민 낟알은 공출과 땅세로 다 빼앗겼다. 충진 형님은 어두울 때 까지 김을 매고도 밤에는 내'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가 량식 보탬을 해야 했다.

(3) 긴 칼을 차고 흔들거리며 싸다니는 일본놈들과 그의 뒤를 개처럼 따라 다니는 지주놈을 볼 때 마다 충진 형님의 두 주먹은 막 떨렸다.

어서 맏 형님 처럼 유격대원이 되여 왜놈들을 다 때려 눕히고 그리운 조국에 돌아 가 마음껏 배우며 일하고 싶었다.

(4) 마침내 충진 형님도 공청원이 되였다. 그때 부터 형님은 조직의 비밀 통신 련락을 자주 다니게 되였다. 한번은 방금 련락 임무를 마치고 돌아 왔는 데 급히 련락 할 일이 또 생겼다. 항상 동지를 아끼며 어려운 일에 앞장 서는 것을 공청원의 영예로 생각한 충진 형님은 그 길로 자기가 또 갔다 왔다.

(5) 원쑤를 증오하는 충진 형님의 마음은 불 같았다. 한번은 단오'날 씨름판에서 왜놈 순사와 맞 붙게 되였다.

충진 형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번개 처럼 달려 붙어 그놈을 공중 들어 꺼꾸러 박았다. 그리고는 모래 투성이가 된 그놈의 얼굴에 침을 탁 뱉았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속 씨원해 했다.

(6) 어느 날 충진 형님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다 못해 지주네 집으로 밀려 갔다.

지주놈은 한 되'박의 쌀도 못 내놓겠다고 버티였다. 충진 형님은 힘을 합해 싸워야 이긴다고 앞장에 서서 고무하면서 쌀 창고 문을 열어 제꼈다.

인민들은 지주놈을 밀어 젖히고 쌀 창고 안으로 몰려 들어 갔다.

(7) 충진 형님은 공청의 위임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한 번은 경찰놈들에게서 권총을 빼앗으라는 임무를 맡고 강 기슭에서 옥수수 밭 김을 매고 있었다. 때 마침 왜놈 경찰 한 놈이 나타나더니 업어 건너 달라고 고함쳤다.

형님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업고 건너다가 제일 깊은 데 가서 그놈을 물 속에 처박고 권총을 떼 가지고 뛰였다.

(8) 경찰 놈은 충진 형님을 따라 잡았다. 놈은 형님의 손을 물어 뜯으며 악을 썼다. 어떤 일이 있던 형님은 공청 이 준 임무를 어길 수 없었다. 마련 했던 고추'가루를 원쑤놈의 두 눈에 쥐어 뿌렸다. 왜놈 순사는 두 눈을 싸 쥐고 돌아 갔다.

형님은 때를 놓지지 않고 그 놈의 대갈통을 힘껏 까부셨다.

(9) 공청의 추천으로 형님은 마침내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였다.

그처럼 그리던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으로 가게 된 충진 형님은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 것만 같았다.

그 이틑날 충진 형님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놓고 둘째 형님과 함께 집을 떠났다.

(10) 유격대에 입대한 충진 형님은 전투 마다에서 원쑤를 용감하게 무찔렀다.

신안촌 전투에서였다. 비'발치듯하는 적 중기관총을 까부시고 부대의 진격을 보장했다. 그러나 그때 전우들의 치하에 대해 형님은 혁명을 위하여 그것은 아직 너무도 적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후 형님은 영예롭게도 공산당에 입당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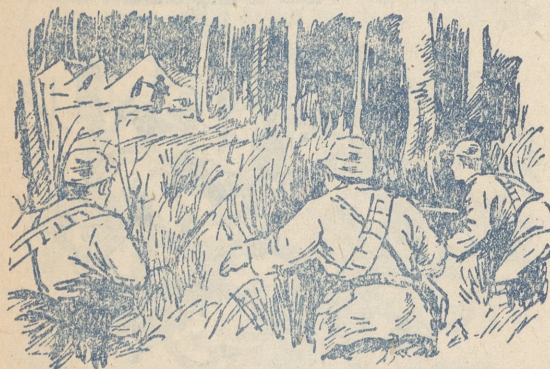
(11) 공산당원이며 소대장인 형님은 대원들을 몹씨 사랑했다. 1937년 봄 조국 땅— 무산 방면으로 진격하던 때였다.

며칠씩 굶으며 어려운 행군을 하던 유격대는 무송을 지난 어느 밀림 속에서 휴식하게 되였다. 형님은 우등 불을 피워 놓고 곤히 잠든 대원들을 돌보고 있었다.

(12) 잠든 대원들이 추울세라 우등불을 피우며 돌아가던 충진 형님은 밭에서 여섯 이삭의 옥수수를 발견했다. 형님은 그것을 돌로 빻아 푸레죽을 쒔다. 허기'증에 지친 유격대원 아저씨들에게 이것은 보기 드문 좋은 식사였다. 대원들을 사랑하는 형님은 조금도 입에 대지 않고 자기는 먼저 요기를 했다고 하면서 대원들에게만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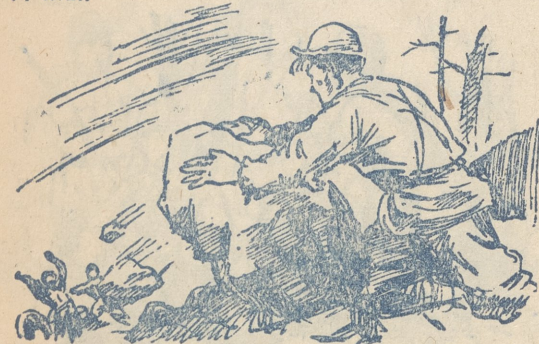
(13) 1937년 5월 두만강을 건너 그리운 조국 무산 땅을 디딘 부대는 붉은 바위 주재소를 포위하고 삽시간에 부락을 해방시켰다. 해방된 인민들의 만세 소리는 하늘을 찌르며 울려 퍼졌다. «모리»란 일본 놈의 쌀 창고가 헤쳐졌다. 충진 형님과 대원들은 인민들의 집마다에 쌀 포대를 메 날라다 주었다.

(14) 1937년 6월 하순에 부대는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히샤즈거우 밀영에 도착했다. 보천보 전투에서 방금 승리하고 돌아 오신 원수님은 충진 형님네 부대 용사들을 반가이 맞아 주셨다.

김 일성 원수님을 뵈옵는 충진 형님은 더욱 용감히 원쑤와 싸울 결의를 굳게 다졌다.

(15) 1939년 여름 부대는 행군 중에 소남거우라는 곳에서 휴식하게 되였다. 이때 일본군 «토벌대» 놈들이 밀려 온다는 신호가 왔다.

충진 형님은 습격조원으로 뽑혔다.

적들의 무기를 파괴하며 적정을 알아야 했다. 세 습격조원은 위험한 고비를 넘으면서 적들의 숙영지에 다가 갔다.

(16) 잠시 후 놈들의 천막에서는 죽어 가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원쑤놈들은 많은 무리였다. 적탄은 귀'뿌리를 스쳐 지났다. 충진 형님은 부상 당한 전우를 업고 내 뛰였다. 그러다가 부상당한 전우를 습격 조장의 잔등에 옮겨 업히고 «이놈들아 빨찌산이 여기 있다»하고 소리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냅다 뛰였다.

(17) 원쑤놈들은 이리 떼 처럼 충진 형님 쪽으로 밀려 왔다. 여러 군데에 적탄을 맞아 충진 형님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였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다. 형님은 바위 돌을 굴리면서 원쑤와 끝까지 싸웠다. 이 사이에 두 전우는 정찰한 내용을 부대에 보고 할 수 있었다. 충진 형님은 이렇게 혁명 임무를 수행했다.

(18) 습격 조장의 정찰 보고를 받은 부대는 수 많은 적들을 교묘하게 진펄까지 끌어다가 몰살시켰다. 전우들은 며칠 후에야 바위를 그러안고 돌처럼 굳어진 형님을 찾아 냈다. 이처럼 김 충진 형님은 피끓는 청춘을 오직 혁명을 위하여 바쳤다. 형님은 비록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 높은 뜻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과학 문화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나라

윤 세 평

사람들은 누구나 제가 난 고장이 더 없이 정다운 것 처럼 자기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자연과 풍토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땅에 자기 선조들의 뼈가 묻히고 그 땅에 자기 선조들의 로력과 땀이 배여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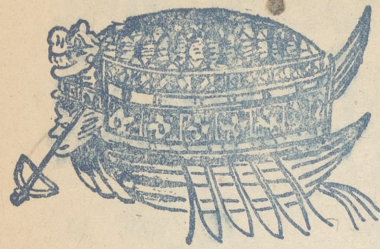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너무 춥거나 더워서 기후 풍토가 고르롭지 못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난 조국을 그 어떤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 부터 금수 강산이라고 불리우리 만큼 아름다운 자연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아름다운 강토 우에 살면서 대대로 자기들의 로력과 지혜를 다 바쳐서 더욱 아름다운 조국으로 꾸리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도 자랑할 반 만년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로 온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거기에 우리 인민들의 남 다른 창조적인 로력과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방 여러 나라 민족을 두고 말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한 겨레들로 이루워진 하나의 민족으로 그처럼 오랜 력사를 내려 오면서 훌륭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자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원 전 훨씬 이전 부터 문명한 생활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일찍 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과학

파 문화를 발전 시켜 왔습니다.

어느 나라나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사냥을 하여서 먹는 것과 입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렵(사냥) 시기는 아직도 낮은 단계였습니다. 차츰 농사'일을 하면서 부터 사람들은 문명한 생활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하면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천문학을 발전 시켰습니다.

그것은 기후의 변화를 잘 알아야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이였지요. 그리하여 신라, 고구려, 백제 등에는 모두 천문학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를 두었으며 신라에서는 그를 《천문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경주 교외에 남아 있는 첨성대는 바로 이 천문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던 곳입니다.

이 첨성대는 기원 7 세기 중엽 즉 지금으로 부터 1천 2백 여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서 동양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입니다.

이 천문대는 당시 인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놀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으며 로동 속에서 과학 문화를 발전시킨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첨성대 하나만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남다른 창조적 로력과 지혜로써 우리 조국을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첨성대 뿐만 아니라 그의 창조적 로동을 통하여 세계에 자랑 할 훌륭한 과학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에도 신라 시기의 건축과 조각은 지금도 사람들을 경탄케 하고 있으며 고려 시기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여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고려 자기로 불리우는 청자기는 우리 나라의 공예품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조 시기에는 1443년에 세계에 자랑 할 우리 나라의 문자인 훈민 정음을 만들어 냈으며 왜적을 물리치는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갑선인 유명한 거북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미국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의 일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나라에는 세계에 자랑할만 한 훌륭한 학자들과 명인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작가 박 지원 선생을 비롯해서 역시 작가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중기를 발명한 정 다산 선생, 세계 최초의 화약을 발명한 최 무선 장군, 동방에서도 꼽히는 훌륭한 의학 서적 《동의 보감》을 만들어 낸 홍 학근 선생, 화가 다원 김 홍도 선생 그리고인민들과 함께 외적을 물리친, 감 감찬, 을지문덕, 리 순신 장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예로 부터 과학 문화가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리조 봉건 시기 봉건 지배 계급들이 나라 일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놈들의 배만 채우고 호강만 하다가 나라를 일본 놈들에게 팔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이 빛나는 과학 문화 전통은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아래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의 이 민족 문화는 더욱 찬란히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조선 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천리마의 기세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민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의 과학 문화를 더욱 꽃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민족 예술은 지금 세계에서 《황금의 예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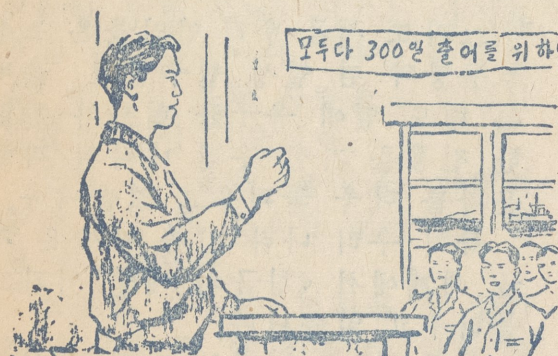
과학에서도 빛나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의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세계에서 일등가는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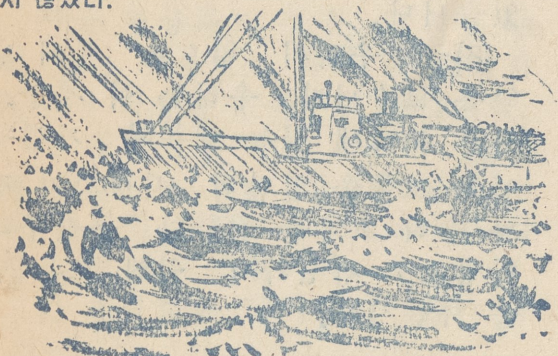
지금 우리의 힘으로 못해 낼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조국에 사는 행복과 기쁨을 안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장차 우리 조국을 휘황한 공산주의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합시다.

용감한 바다의 형님들

김책 수산 사업소 천리마 민청호 (자망 71호)형님들에 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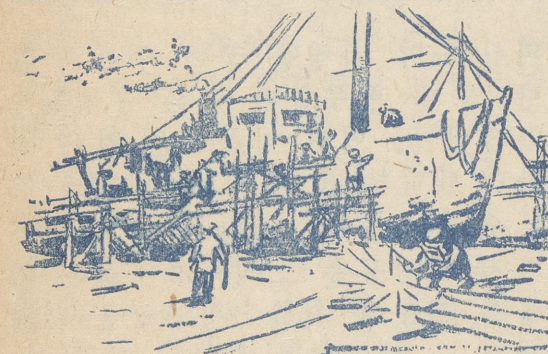
글 김 광 준
그림 오 영 복

1, 재작년 이른 봄 어느 날 일이였다. 김책 수산 사업소 민청호 자망 71호의 기관장인 도 종호 형님은 당 단체 회의에서 1년에 300일 이상 고기 잡으려 나갈 것을 다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그렇게는 바다에 나갈 수 없다고 머리를 저었지만 도 종호 형님은 《이것은 수상님이 주신 과업이니 꼭 해 내야 한다》고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2, 그때로 부터 민청호 형님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 없이 바다로 나갔다. 도 종호 형님은 배 기관을 자기의 심장 처럼 소중히 여겼다.

닦고 기름을 치고 하면서 고장이 날세라 미리 미리 부속품을 갈아 댔다. 그래서 민청호만은 단 한번도 고장을 안냈다.

3, 하루는 바람이 모질게 불어 댔는 데 민청호 형님들만이 《유격대 행진곡》을 씩씩히 부르며 배를 풀었다. 이것을 본 다른 배들도 민청호를 뒤따라 나섰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물'결이 거칠어 일 할 수 없다고 배'머리를 돌리였다. 그래도 민청호만은 거센 파도를 가르며 기관 소리 요란케 통통통통 먼 바다로 나갔다.

4, 그날 민청호 형님들은 사나운 물'결과 싸우면서 그물을 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물 아래 베대가 끊어졌다. 그물을 몽땅 잃을 위험에 부닥쳤다. 기관실에서 뛰쳐 나온 도 종호 형님은 지체 할 새 없이 바'줄로 허리를 동여 매고 배 밖에 허궁 매 달렸다. 형님은 물'결이 온 몸을 때려 눈조차 뜰 수 없었으나 기여히 그물을 댕겨 올리고야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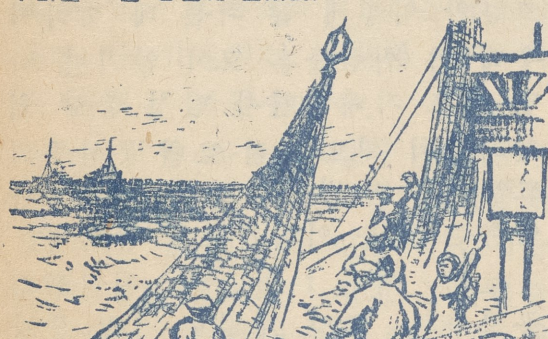
5, 민청호 형님들은 함북도에 오셔서 하신 김 일성 수상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먼저 알섬에 고기 잡으려 갔었고 또 제일 먼 바다로 나가군 했다 .한번은 고기 배들이 아직 한번도 나가 보지 못한 그런 먼 바다로 나갔다. 거기서 형님들은 우통룸 모임을 열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 처럼 용감히 싸울 것을 다짐한 후 35틀의 그물로 숫한 공치를 잡아 가지고 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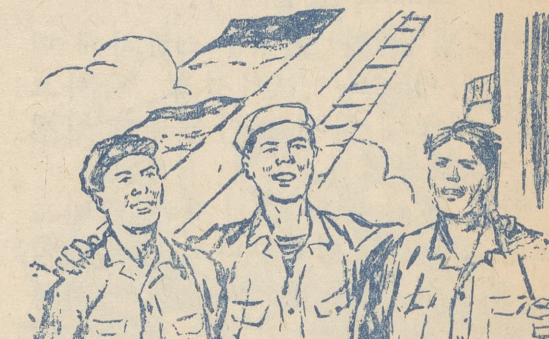
6, 이해 12월 13일이였다. 이날 부두에는 수천명의 아저씨 형님 누나들이 꽃다발을 들고 꼭 300일째 고기 잡으려 나갔다 돌아 오는 용감한 민청호 형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여 민청호가 만선기 휘날리며 돌아 왔다. 모두들 민청호 형님들을 끌어 안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다.

7, 지난 해 민청호 형님들은 325일을 고기 잡으려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자면 배 수리를 짧은 날자에 해 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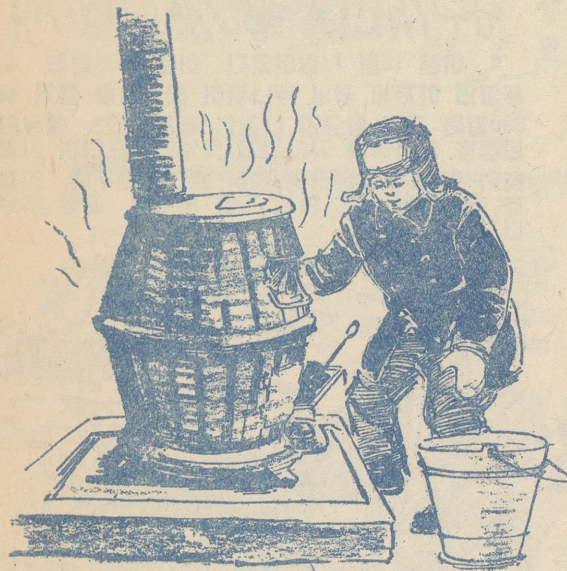
민청호형님은 이 어려운 일을 수리 공장 로동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밤을 밝혀 가며 도왔다.

이리하여 그 전에는 한 달이 더 걸리던 배의 대수리를 17일 동안에 끝냈다.

8, 그후 마침내 민청호 형님들은 《천리마 민청호》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당의 뜨거운 사랑에 힘이 부쩍 난 형님들은 자망이라는 그물만 쓰게 된 조그마한 기계 배를 가지고서도 큰 기계 배들처럼 저예망, 건착망과 같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냈다. 그리고 또 전기'불로도 고기를 멋들어지게 잡아 냈다.

9, 당의 가르침 대로 손으로 하던 일을 모두 기계로 하자고 굳게 마음 먹은 천리마 민청호 형님들은 또 《양망기》라고 부르는 그물 당기는 기계를 만들어 내여 그전에는 열 사람이 힘들여 하던 일을 혼자서도 씽씽 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형님들은 지난 해에 325일을 고기 잡으려 나갔고 또 계획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10, 천리마 민청호 형님들은 금년에 80만 톤 이상의 물'고기를 잡으라고 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325일을 바다에 나갈 것과 작년 보다 곱절의 물'고기를 잡을 것을 다짐 했다. 용감한 바다의 용사들인 형님들은 지금 넓고 넓은 바다'길을 주름 잡으며 산더미 처럼 물'고기를 잡아 내고 있다.

자라는 붉은 마음

평남 순안군 안흥 중학교 단
위원장 김 형석

요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에게는 아름다운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타 오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안 계시면 소란하게 떠들던 아이들도 없어졌고 춥다고 조기 체조에 빠지는 아이들도 인젠 볼 수 없습니다.

함박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도 모두 남 먼저 달려 나와 눈을 치고 난로를 피우며 씩씩하게 뛰놉니다.

김 정숙 동무와 같이 분단의 비가 낡아진 것을 보고 아무도 모르게 비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실 청소를 해 놓는 동무가 있는가 하면 인민반 어린 동생들의 난로를 피워 주며 반실을 꾸려 주는 4 분단 4 반 동무들과 같은 동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은 날마다 헤아릴 수 없이 늘어 갑니다.

우리는 물론 지난 날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을 조직하고 붉은 마음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럼 방향을 똑똑히 세우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단의 공산주의 교양이 이렇게 잘 되는 데 대하여 우리 단 위원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서로 기뻐하면서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 새로 내려 보낸 공산주의 교양 제목과 방법으로 사업한 결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군 합니다.

그래 이번 1 월 단 위원회의 공산주의 교양 계획도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 내려 온 제목들에 근거해서 분단 위원 이상 동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의논하여 세웠습니다.

여러 동무들의 의견을 합해서 세 가지에 중심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제 1차 5 개년 계획을 승리로 끝내고 눈부신 7 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내세운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깊이 배우면서 전체 동무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사는 자랑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자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항일 빨찌산 시기 공청원들과 아동단원들의 투쟁을 배우며 로동당의 령도하에 민청이 걸어온 길을 연구 하기로 했습니다.

세째로, 겨울 방학을 맞으며 집단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 줄 알도록 하며 소년단원의 자각을 더욱 높여 조직의 위임에 충실 하도록 교양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은 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임—이야기 모임, 그림 극, 독보 등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와 각 분단들에서도 단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자료 수집반 동무들은 《공청 생활에 대한 회상》, 《혁명을 위하여》 등 책들과 신문, 잡지들에서 항일 빨찌산 시기 공청원들의 투쟁 이야기들을 골라 내여 연구실에 모아 왔습니다. 그리고 인민반 동무들을 위해서는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를 사진 이야기첩으로 만들었고 기타 그림 이야기, 스크랲을 20 여 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관리 운영반 동무들은 먼저 한 달 동안의 연구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연구실에 준비 해 놓은 책들과 기타 자료들을 모든 분단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직했습니다.

선전반에서는 크루쇼크의 이름으로 벽보를 발간하고 연구실에 진렬된 스크랲들과 책들도 소개하고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그림극 《공청원 강 차위》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림극은 분단마다에 조직된 혁명 전통 연구반에 가지고 내려 가 해설 해 주었습니다.

행사 조직반에서는 《우리 조국은 참 좋다》라는 이야기 모임과 안흥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누나를 모셔다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하는 민청원

형님 누나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문학 예술반 동무들은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한 무용극, 스케취, 합창, 시 랑송을 준비하는 한편 군중 무용《만경대를 찾아서》와 혁명 가요를 전체 동무들에게 보급 하였습니다.

단 위원회와 로동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의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분단들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사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항상 읽은 책 이야기 모임 밖에 조직할 줄 모르던 4 분단에서도 단 위원회 계획에 근거하여 분단의 공산주의 교양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히 흥미 있고 다양하게 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항일 빨찌산 시기 공청원들은 아동단을 어떻게 지도해 주었는가?》, 《로동당의 령도하에 민청이 걸어 온 길》,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 《평화적 조국 통일의 날은 닥아 온다》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가졌고 《누가 분단의 영예를 더 빛 내였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분단 모임을 조직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준비되여 있는 책 《공청 생활에 대한 회상》, 《혁명을 위하여》 등을 읽고 감상 발표 모임을 가졌고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붉은 꽃봉오리》의 감상 모임도 가졌습니다. 공청원들의 투쟁과 민청원들의 투쟁을 배우고 작문, 동요, 동시를 써서 작품 전람회도 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아름다운 일을 적은 일기—새 해 첫날의 일기 등을 써서 발표 모임도 조직했습니다.

이 외에도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한 반 대항 연예 써클 발표회도 가지고 상봉 모임, 견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조직 하였습니다.

인민반들에서는 자기들에게 알 맞게 그림극, 그림 이야기 등을 많이 보고 라지오를 듣고 감상을 이야기하는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단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로동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와 분단들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흥미 있게 공산주의 교양을 쌓아가니 동무들의 붉은 마음은 나날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평북 정주군 남양 중학교 단 제 2 분단에서

글 최 죽 산　　그림 윤 영 자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해 나서던 분단 총회가 있은 날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 가는 산월이와 시선이는 서로 깊은 생각에 잠겨 걷고 있었습니다.

산월이는 오는 4월 15일까지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 하자고 토론하던 동무들의 말 소리가 귀'가에 쟁쟁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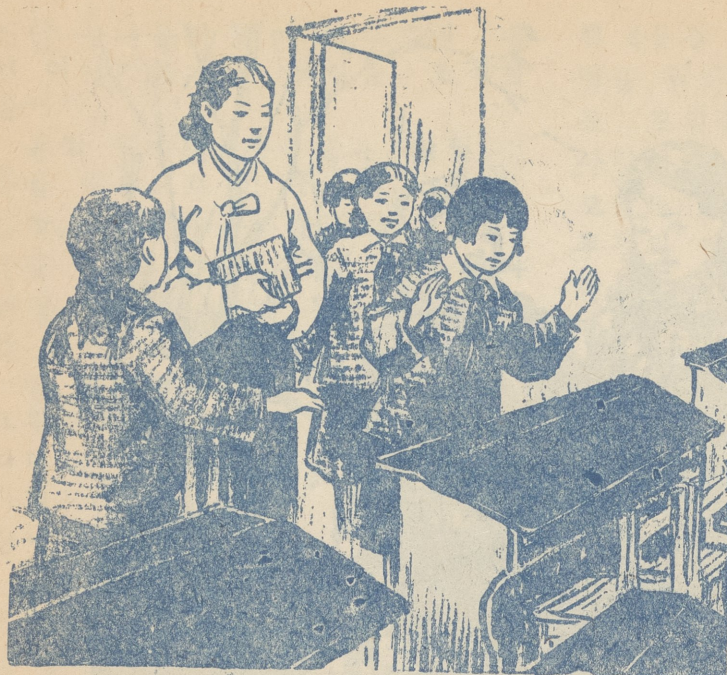
《산월아, 넌 므슨 생각을 그리 하니?》 분단 위원장인 시선의 이런 말에 산월이는 《아무 것도 아냐》하고는 묵묵히 걷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분단에서 말썽을 부려 오던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고치면 되잖니》

시선의 말에 산월이는 무슨 큰 힘이라도 얻은 듯 그제야 《나도 마음 먹고 있어》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였습니다. 분단에서는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서 뒤 떨어진 동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의논되였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날 산월이를 비롯한 몇몇 동무들은 분단의 규률도 례절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분단이 하나로 뭉치는 일

부터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분단 전체가 서로 도와 한 사람의 지각생도 없게 하며 숙제를 안해 오거나 분단에서 하자고 결정한 일들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분단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아동단의 모범을 배우며 따르는 일들을 더 많이 조직하자고 하였지요.

소설 《만경대》, 《아동단》,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을 모든 동무들이 읽으며 분단에서는 읽은 책 이야기 모임, 그림 극 같은 것을 자주 조직 하자고 말이지요.

그리고 항상 례절에 밝고 자기의 몸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며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키우기 위해 《소년 신문》, 《소년단》에 나오는 모범적인 이야기를 빠짐 없이 독보하며 분단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을 분단 벽보에 소개하는 일도 더 잘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후 분단에서는 정주군 영예군인 공장 김 의태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그 불편한 몸 을 가지고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여 서로 도와 가며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많이 생산 하기에 힘 쓰는 아저씨들의 투쟁 이야기는 모두 그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후 어느 날 아침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 선 동무들은 깜작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책상에 니스를 말끔히 칠했을가?.》 동무들은 서로 얼굴들만 마주 보았습니다.

《하긴 분단 동무들이 했겠는 데.》하며 선생님도 모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동무들은 혜영이와 산월이의 옷에 니스가 묻은 것을 보고서야 이런 아름다운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영이와 산월이는 자기들도 분단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없겠는 가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책상을 말끔히 닦아 보자고 의논 했던 것이지요.

어느 일요일 혜영이가 집에 있는 니스를 가지고 산월이에게 찾아 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나와 유리 쪼박으로 책상을 깨끗이 닦고 니스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곧 분단 벽보와 단 벽보에 소개 되였습니다.

혜영이와 산월이는 분단을 위해 처음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자랑으로 끝 없이 기뻤습니다.

경식이의 도움을 받아 산월이는 공부에도 전에 없던 열성을 내게 되였습니다.

경식이가 하루도 빠짐 없이 산월이네 집에 찾아 가서 도와 준 것도 있지만 그 보다도 배우겠다는 산월이 자신의 노력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산월이는 차츰 자기 혼자의 게으름이 그만큼 분단 전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산월이는 본래 작문은 좀 잘 짓는 편이였습니다.

어느 날 산월이가 공욱이네 집에 갔을 때입니다. 공욱이는 분단에서 위임 받은 《겨울 철의 토끼 기르는 법》 이야기를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을지 몰라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것을 안 산월이는 공욱이를 도와 그가 동무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글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년 신문》에 통신 원고로도 보내였던 것입니다.

동무들의 생활 속에서는 매일과 같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 처럼 여기는 복실이가 정숙이와 같이 집으로 갈 때였습니다. 정숙이는 내리막 눈'길에서 발을 곱디디여 걷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복실이는 정실이를 업고 7 리나 되는 조합 진료소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모범 분단》 칭호 쟁취에 나선 다음 날 부터 이렇듯 동무들에게는 하나로 뭉쳐 서로 도우며 이끌어 나가는 일들이 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차 옥순이가 동무들 앞에 나무로 만든 모형 하나를 내 놓았습니다.

《그건 뭘 하는거냐?》 비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측량 작업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판이란 거야》

옥순이는 분단 동무들의 수학 과목 성적이 낮은 것을 도우려고 이때까지 생각한 《설명판》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가며 만들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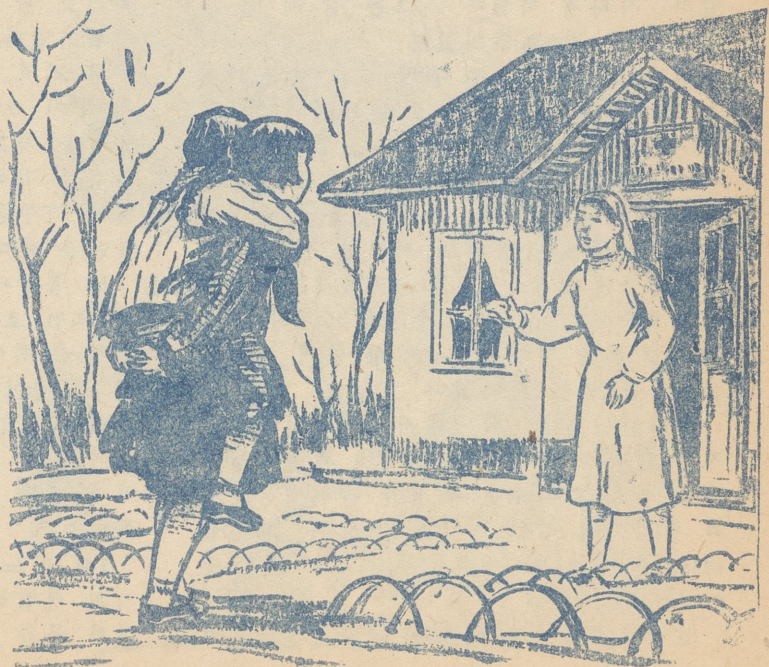
옥순이는 다음 날 부터 《수학 벽보》도 만들어 동무들에게 수학은 어렵지 않은 과목이란 것을 재미 있게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옥순이가 수학 과목 성적이 제일 뒤떨어진 4 반 동무들의 학습을 도우려고 그들의 마을로 갔다 올 때였습니다.

5 리 남짓히 왔을 때 옥순이는 주춤하고 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하였습니다. 《다항식의 제'법》에서 부호를 잘 못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전 분단이 모두가 우등, 최우등으로 될 것을 결의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집으로 간다는 것은 동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옥순이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가 다시 정확히 알려 주고서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동무들은 모두가 옥순의 이런 일에 감탄 하여 무슨 일이든지 옥순이 처럼 책임성 있게 수행하자고 했습니다.

분단의 출석률은 늘 10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도 점점 높아져서 지금 우등 최우등생이 86%나 됩니다.

이렇듯 분단 동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도우며 《모범 분단》 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선 영남이

글 정종균　　　　그림 최순천

진눈깨비 나리는 정월 초하루'날 부산 부두'가에서였다, 열 댓살 나 보이는 한 소년이 쓰레기 무지를 뒤지다가 멈춰서서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람루한 누더기를 걸친 그 소년은 손에 들었던 깡통을 내동댕이 치고 눈 속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다. 그는 갈 데 올 데 없는 고아 박 영남이였다.

영남이는 지금으로 부터 몇해 전만 하여도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괴정리 박 근수 농민의 귀동자로 자라고 있었다.

영남이 네 집에서는 일곱 마지기의 소작땅을 부치고 있었다. 많은 빚을 질머지면서 피땀 흘려 농사라고 지으면 지주 놈과 관리놈들에게 《소작료》, 《소득세》, 《비료값》, 《수세》, 《군경 원호비》, 《리세》, 《면세》 등을 비롯하여 수 십 종의 세금과 잡부금을 물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타작 마당에서 식량이 떨어지군 했다. 이렇게 놈들에게 피를 빨리우고 살을 깍기우는 혹심한 착취에 못이겨 영남이네 집안 식구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산 설고 물 서른 부산으로 왔던 것이다.

영남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이 있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서울에 있던 영남이 형님은 의용군으로 나가 미국놈들과 싸우다가 북반부로 들어왔다.

부산으로 떠나 온 영남이네 식구들은 일 자리를 얻으려고 애 썼으나 끝내 얻지 못하고 날 품팔이로 하루하루 지내 가는 형편이였다.

헌 거적, 미국 깡통, 판자 쪼각 같은 것을 주어 모아다 부산시 가야동 다리통에 움막을 치고 자리 잡은 영남이 아버지는 매일과 같이 지게를 지고 아침 일찍 부터 저녁 어두울 때 까지 일'감을 찾아 부산 거리를 싸다녔다.

날 품팔이로 한 되박 보리 쌀이라도 벌어 오면 보리 죽이라도 우려서 가족들의 입에 풀 칠이라도 하지만 아버지가 그것마저 못 벌어 오는 날에는 굶을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다음 해 봄이 잡히면서 센 바람이 불며 비가 계속 나리여 며칠째 돈 한푼 벌지 못하였다.

4월 어느날 영남이 아버지는 아침 요기도 변변히 못하고 주림과 고된 로동에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부두로 나갔다.

그 날은 미국놈들의 군수 물자를 배에서 메여 내리게 되였다.

늘 굶어 오던 데다 무거운 짐짝을 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발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이 것을 본 양키 감독 놈은 《빨리 빨리 못하고 왜 우물거리는 거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배에서 짐을 메고 나무 다리로 건너 오는 영남이 아버지를 다짜고짜 채찍으로 후려 갈겼다.

영남이 아버지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짐을 멘채 바다'물에 떨어졌다.

영남이 아버지는 다시 솟구쳐 나오지 못했다. 양키놈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할 생각은 고사하고 짐짝 빠진게 아까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야수 같은 양키놈들에게 빼앗긴 영남이는 젓 먹이를 안고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구환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영남이는 헌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시래기를 모아 오며 야산에 가서 나무 등걸을 캐다가 불도 땠고 철'길에 나가 석탄을 주어다 팔아선 납작 보리를 사다 시래기 죽을 쑤어 먹으며 살았다.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4월 인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날도 헌 자루를 메고 거리에 나왔던 영남이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몰려 가는 곳으로 따라 가 보았다.

그 곳에서는 경찰서가 짓부셔지고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반공 회관》이 불붙고 있었다.

더욱 영남이를 놀라게 한 것은 야밤에 아무말도 없이 마구 자기의 움막 집을 헐어 버렸고 또 자기와 같은 거지들을 보기만 하면 못살게 굴던 그 밉살스러운 순사놈들이 시위자들에게 얻어 맞으며 벌벌 떨고 있는 것이였다.

자기도 모르게 흥분된 영남이는 학생들과 함께 그 증오스러운 순사놈들에게 달려 들어 집어 뜯었다.

영남이는 리 승만이가 꺼꾸러지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으며 집 없고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더욱 새 힘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리 승만이가 꺼꾸러진지 반년이 넘었으나 영남이의 생활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누데기를 몸에 걸치고 깡통을 들고 빌어 먹어야 했으며 순사놈들의 성화를 받아야 하였다.

공장 문이 닫기우고 곡식이 해마다 줄어가는 남 조선에서 그것들이 복구되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이 달라 질 수 없는 것이다.

거리와 상점들에는 양키놈들의 물건들이 가득 차고 쌀 한 말에 수천환 씩 하는 세상—무슨 돈으로 쌀을 사 대겠는가.

먹지도 못한 데다 돈이 없어 약 한 봉지 쓰지 못한 탓으로 어머니 병은 점점 위급해 갔다. 영남이는 쌀을 살려고 마

련해 두었던 돈 몇 환을 가지고 어머니를 부축해서 《기독교 병원》으로 찾아 갔다.

소위《자선 사업》(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일)을 한다는 이 병원 놈들은 영남이와 그의 어머니의 허줄한 옷 차림을 우 아래로 훑어 보더니 병을 봐 줄 생각은 고사하고 다짜고짜로 밖으로 쫓아 내고 마는 것이였다.

하기야 돈 밖에 모르는 이 놈들이 영남이 처럼 헐 벗고 굶주리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봐 줄 리 없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위급해진 영남이 어머니는 병원 문 앞에서 갓난 아이와 함께 그만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영남이는 어머니를 부더안고 울고 또 울었다.

암만 울어 보아야 어머니는 다시 돌아 올리 없었다.

그리하여 의지 할 곳 없는 고아가 된 영남이는 살아 나갈 앞 길이 캄캄하였고 형님이 더욱 그리워졌다.

그는 형님을 찾아 북반부로 오고 싶은 마음이 태산같았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하루는 순사놈들이 떼를 지어 몰려 와 가야동 다리통 근방 판자 집과 움막들이 더럽고 《보기가 흉하다》고 모조리 헐어 버렸다. 그바람에 영남이에게는 그나마의 움막 《집》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인민들의 피'땀으로 잘 먹고 잘 지내는 놈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 없었다.

그날 부터 영남이는 깨여진 토관 속이 아니면 공원의 걸상 이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는 신세가 되였다.

새우잠에서 깨여 나면 영남이는 찬 바람에 몸을 움추리고 장마당이나 뻐스 정류장 앞으로 돌아 다니다가 오가는 사람들의 소매에 매달려 돈을 달라고 애걸하거나 혹은 집집을 찾아 다니며 빌어 먹는 것이 일과로 되였다.

날마다 거러지가 점점 더 많아져서 그전 보다 얻어 먹기가 더 힘 들게 되였다.

날이 갈수록 북조선에 있는 형님 생각이 더 났다.

《통일은 언제나 되나… 형님을 맞나면 얼마나 기쁠가!》

영남이는 문득 삼용 아저씨의 말씀이 생각 났다.

《남조선에서는 누가 정치를 해도 우리들의 가난한 생활은 조금도 나아 질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수상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남북 간에 사람도 물건도 오가게 되여 파괴된 남조선 경제가 북조선의 밑천으로 복구되고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천대 받고 굶주리는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 때에는 영남이도 형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의복을 입고 돈 한푼 내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 가야동 다리통 움막에서 영남이네가 살던 때 삼용 아저씨는 바로 영남이네 움막 앞 판자집에서 살던 아버지의 친구였다.

영남이는 삼용 아저씨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그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영남이는 삼용 아저씨가 잘 다니던 골목'길을 지켜 섰으나 좀체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남이는 끝내 삼용 아저씨를 만나게 되였다. 이날도 아저씨는 영남이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8.15 해방 15 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김 일성 수상님이 내 놓으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방안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에서 남반부에 보낸 편지와 의견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셨다.

공화국 정부가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비참한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남조선에 많은 공장들과 관개 시설을 해주고 많은 물자를 보내 주며 특히 영남이와 같이 거리를 헤매는 50만의 남 조선 고아들을 받아 들여 공부 시킬 것을 제의 했다는 말에 영남이는 저도 모르게 손'벽을 쳤다.

어떻게하면 하루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는가고 물어 보았다.

삼용 아저씨는 남조선 인민들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면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이야기 하셨다.

삼용 아저씨는 이 문제를 자기 동무들과 의논하러 이제 서울로 떠나려는 길이며 며칠 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 온다는 것이였다.

영남이는 삼용 아저씨가 서울에서 돌아오면 아저씨의 일을 도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그리운 형님을 하루 속히 만나기 위하여 투쟁하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서울로 떠나는 삼용 아저씨를 바래는 영남이의 눈 앞에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날에 벌어질 감격적인 장면들이 떠 올랐다.

그리운 형님과 만나는 장면이며, 새 의복을 입고 학생모를 쓰고 책 가방을 들고 북조선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자기의 모습이며 가지가지의 장면들이 번갈아 떠 올랐다.

영남이는 그날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동요

안 룡만

창 밖에 첫 눈이 나리는 밤
라지오의 스피카에서 울리는
최고 인민 회의 편지를 듣노라면
우리집 고향 집이 생각킵니다.

그것은 락동강'가 자그만 마을
나는 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고향에 아직도 계신다는
외할머니 이야기 들려 주세요

엄마는 뒤지 서랍에 간직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시였지
젊었을 때 외할머니 모습은
우리 엄마 얼굴과 정말 비슷해요

지금은 주름이 잡혔을 외할머니
여름엔 모기'불 쑥 향내 피우며
겨울 밤엔 밤 알을 화로'불에 구으며
옛'이야기 잘도 했다는 외할머니

아직도 고향 마을에 살아 계실가
그리운 마음 또박또박 적은 편지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으려니 알 수 없어요
보낼 길 없는 이 편지 언제 보내나

그래도 나는 쓰고 또 씁니다
락동강'가에 띄우는 나의 편지
반드시 보낼 날이 올 것이기에
인제 멀지 않아 부산행 급행 차 타고
달려 갈 통일의 날은 올 것이기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날을 위해 싸우시는 데
내 힘도 한데 합쳐
싸우겠어요.

거름 모으기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 입니까? 저는 함북 김책시 신평 중학교 통신원 한 춘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금년에 지난 해보다 100만 톤의 알곡을 더 내기 위해 일떠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거름 모으기에 한 사람 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300 여 명의 열성자 모임을 열고 분단별 반별 경쟁을 하여 더 많은 거름을 모으기로 의논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선생님에게서 비료의 세 요소인 질소, 린산, 카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름을 생산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 모임을 가진 이튿날 부터 분단들에서는 다른 분단 보다 더 많이 모으겠다고 경쟁하면서 분단 별로 퇴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의 곳곳을 다니며 비료 원천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전 부터 쓰레기를 버려 오던 장소를 발견하여 3일간에 165톤의 비료를 협동 조합 밭에 운반 까지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조기 청소 시간과 저녁에 집에 돌아 가는 시간을 리용하여 건초, 락엽을 모으고 개바닥 흙도 파고 시궁창을 파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 아궁이에서 흙을 구어 내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참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은 보다 많은 거름을 모아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더 힘껏 돕겠습니다.

이 것 을 아 십 니 까 ?

눈이 많이 오면?

눈은 열을 잘 전 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그래 눈이 많이 덮여 있으면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또 밖의 추위가 스며 들지 못하게 하므로 가을에 심은 밀, 보리가 얼어 죽지 않게 된다. 또 눈이 많이 싸이면 땅은 그다지 깊이 얼지 않기 때문에 봄이 되면 땅은 눈과 함께 녹기 시작한다. 그래서 눈이 녹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 봄에 씨앗들이 움 트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눈은 비에 비하여 비료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공기중에 있는 비료 성분들을 묻혀 가지고 나려 온다.

특히 봄 비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 녹은 물은 농사를 짓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평북 정주군 월양 중학교 단 통신원 리영히 입니다.

우리 학교 단에서는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8차 회의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 보낸 편지와 의견서 내용을 연구하고 남반부의 동무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14분단 동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 열심히 공부하여 오는 4월 15일 전으로 《모범 분단》 칭호를 받을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분단 동무들은 서로 도와 가며 공부하여 벌써 100%의 출석률과 60%의 우등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공작 크루쇼크원 동무들은 매일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익혀 가면서 남조선에 있는 50만의 류랑 고아들을 받아 들이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자, 콤파스, 필통, 계수기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년 선전 예술대》에서는 노래와 춤, 스케치 등을 가지고 마을 협동 조합에 나가서 공연도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로동당의 정책을 해설하며 《우리의 길은 하나이다》 등 노래도 배워 줍니다.

미술 크루쇼크에서는 조선 지도를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 줄 관개 공사장과 공장 세울 곳 남북 조선에서 열어 놓을 어장들과 어항들을 그려 학교와 부락 마다에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각 분단들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매일 독보로써 알려 주며 우리 인민의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날 남조선에서 지주놈의 간악한 착취를 받아 오다가 북반부에 들어 온 홍 우택 조합원 아저씨를 모시고 남반부 농민들과 소년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흥 미 있 는 실 험

왜 그럴가요?

시험관 속에 있는 얼음은 물 우에 뜨지 않도록 쇠쪼박 같은 무거운 것을 달아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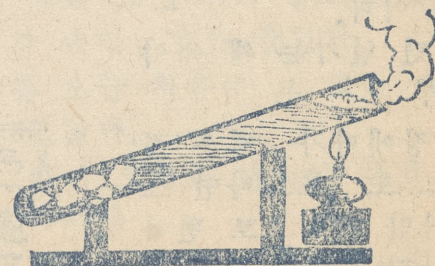
그림과 같이 시험관을 알콜 람프(알콜 등잔)에 가져다 불'길이 시험관의 우'부분에만 닿도록 하시요.

물은 김을 내면서 곧 끓기 시작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 시험관 바닥에 있는 얼음은 녹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가요?

물은 열을 받으면 팽창 되어 가벼워져서 더운 물은 시험관 우'부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호 동무의 일기

리 원 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일기를 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일기를 써 두어 무엇하느냐고 하면서 아예 쓸 념두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날마다 한 일들과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써 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왜 유익한지 잠간 이야기하자.

동무들은 날마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집에 돌아 와서도 복습한다. 즉 또 읽고 또 쓴다. 왜 그렇게 또 읽고 또 쓰는가? 그것은 또 읽고 쓰노라면 배운 것들이 머리 속에 색여져서 지식으로 변하는 까닭이다.

그러면 일기는 왜 써야 하는가?

학습장에다가 배운 것을 쓰고 또 쓰노라면 그것이 다만 지식으로 변하지만 일기 책에다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겨 본 이야기들과 누구를 도와 준 일, 그리고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날마다 써 두고 후에 그것을 읽어 보고 자기가 한 일을 분석해 보는 버릇을 부친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공산주의적 새 생활 감정을 가진 새 인간으로 될 것이다.

다만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학습장에 쓰고 또 써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배운 지식을 리용 할 줄 알아야 하며, 누구를 도와 줄 줄 알아야 하며, 무엇을 만들어 내는 로동을 즐겨 할 줄 아는 새 인간이 되기 전에는 제 아무리 머리 속에 그득히 새겨 넣은 지식이라도 그것은 죽은 지식이다.

일기 책엔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써 두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긴 생활의 이야기들을 쓴다.

내가 잘 아는 성호라는 소년단원이 있는 데 그 동무는 매일 일기를 쓴다.

성호 동무는 어느 날 자기가 쓴 일기를 나 한테 읽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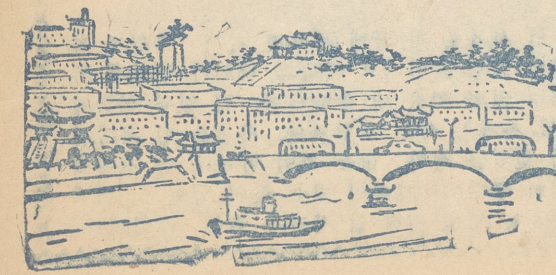
그 일기 구절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 보았다. 푸로페라 돌아 가는 소리가 푸르릉거리기 시작할 때 내 가슴은 두근두근하였다. 나는 창문으로 내다 봤다. 그런데 어느새 비행기가 떠올랐는지 내가 서 있던 땅이 눈 아래로 내려다 보이지 않는가!

〈야 이거 내가 지금 하늘에 둥둥 떠 있구나!〉

나는 금시 나는 새가 된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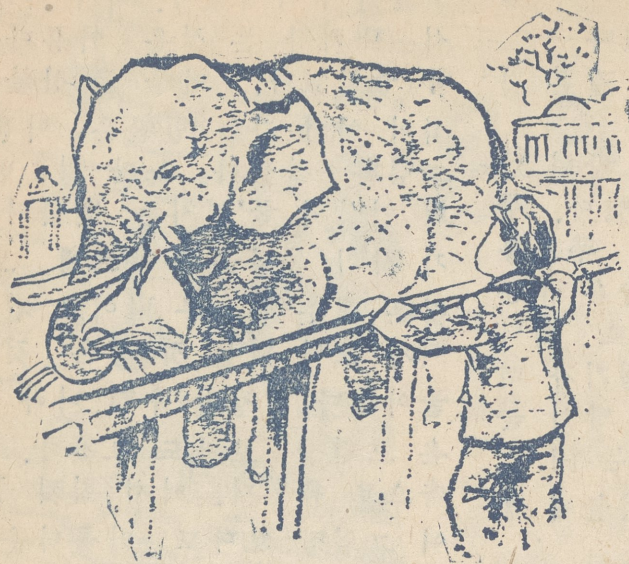
나는 날개를 치는 마음으로 창문에 붙어 앉아서 밖을 내다 보았다. 그런데 늘 밑에서 올려다만 보던 5층 집, 6층 집 들이 키다리 굴뚝과 철탑들이 모두 비행기 아래 있었다. 지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 보며 날아 가고 있다. 5층, 6층 아빠트들이 성냥곽만 하여 보이고 키다리 철탑들과 전선주들이 새끼 손가락만 하여 보였다.

그러나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본 것은 성냥곽만한 집들과 새끼 손 가락만한 철탑들과 전선주들만이 아니였다. 내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것은 아름다운 조국 땅이였다. 단풍 든 산들과 곡식이 익어 가는 벌판은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노란 빛 벌판은 벼 이삭이 물'결치는 벌판이고 여기 저기 듬성듬성 푸르게 보이는 것은 배추 밭, 무 밭이고 긴 푸른 띠가 노여 있는 것 같은 것은 강물이였다. 정말 우리 나라 강산은 그림장 보다도 고왔다. 나는 속으로 웨쳤다. 어서 힘껏 공부하여 그림장 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는 성호 학생이 이렇게 자기가 한 일, 보고 느낀 것을 일기 책에 쓰면서 아름다운 생활 정서를 가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 한 대목 읽어 주렴》하고 나는 부탁하였다. 그랬더니 성호는 대성산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구경을 하고 와서 써 둔 석 달 전 일기를 읽어 주었다.

《…나는 오늘 난생 처음 코끼리를 보았다. 그런데 코끼리의 코가 긴 줄은 그전 부터 알고 있었는 데 코가 손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에 그 코를 다리인 줄 알았다.

〈아니 코끼리 다리가 다섯 개가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앞에 달려 있는 긴 다리를 쳐다 보았다. 그런데 그 다리가 너들너들하기 시작하더

니 땅 우에 흩어져 있는 짚을 둘둘 말아 올리더니 한 발을 쳐들고 거기에다 한참 툭툭 치고 나서 그것을 먹었다.

〈야! 그 것 참! 나는 그게 발인줄 알았더니 손이구나. 저놈도 위생을 지키노라고 그러는지 흙을 툭툭 털어서 먹는구나, 가만 있자 그러면 코는 어디 갔니?〉

그래서 유심히 보니 그것은 손이 아니라 코인데 그 코가 손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우스워 배를 글어 쥐고 웃으며 말했다.

《성호야 너는 코끼리를 구경하여도 아주 심각하게 하누나, 그렇다. 같은 코끼리를 보아도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 관찰력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래야 새 발견이 있을 수 있거든…》

우리는 성호 동무의 일기를 통해 날마다 일기를 쓰는 동안에 이렇게 그 사람의 생활 정서와 아름다운 감정이 풍부해 진다는 것 그리고 같은 코끼리를 보아도 새 코끼리를 발견하는 련습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나 항상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적어 두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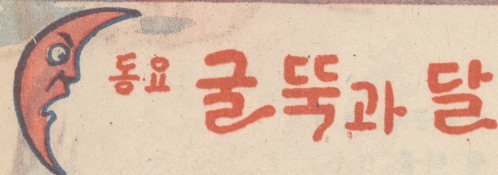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서 훌륭한 작문, 동요, 동시, 소설, 동화 같은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다.

언 사과는 왜 찬물에 녹여야 하는가?

어느날 공장에서 돌아 온 누나는 언 사과를 가져 왔다고 하면서 뜨거운 물에 녹이지 않고 찬물에 넣어 녹이고 있지를 않겠습니까?

길남이에게는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날 밤 길남이는 누나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상스럽다는 의심이 풀리였습니다.

언 사과를 찬 물에 넣으면 사과 주위에 가까이 있는 물이 0도 이하로 내려가 얼면서 가지고 있던 열을 내 놓습니다. 이 열에 의하여 언 사과는 녹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 사과에서 얼음을 뽑아 내는 것이 아니라 언 사과에 의해 주위에 가까이 있는 물이 얼면서 이때 나오는 열에 의해 언 사과가 녹는 것입니다.

동요 굴뚝과 달

동산에 떠 오른 달을 보세요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해요
보름 때면 두리둥둥 북을 울리며
마중 오라 싱글벙글 웃던 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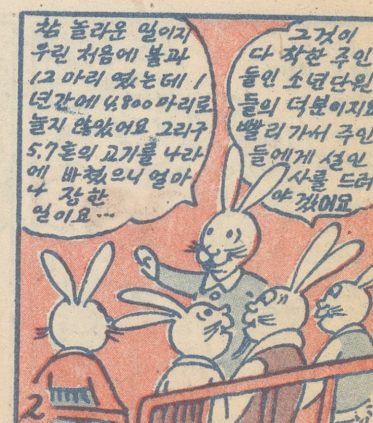
아마도 새 공장을 낯 설은 게죠
밀림 처럼 솟은 굴뚝 무서운게죠
한 달 전 터 닦을 때 깔보듯
히죽 히죽 비웃으며 지나던 달이,

동해 바다 수 천 리를 넘어 온다고
으시대던 저 달이 말을 못해요
하늘을 찌를듯한 굴뚝을 보고
어떻게 넘어 갈가 걱정만 해요.

벌써 부터 저 굴뚝 못 넘어서
저렇게 저렇게 걱정이라면
7년 후엔 열곱이나 높이 설
강철 공장 높은 굴뚝 어떻게 넘나.

황해남도 삼천군 방남 중학교
류 서광

(평남도 평원군 월일 중학교 토끼 우리에서)

동요 무얼 보나요

오늘은 설 날 아침
순옥이는 널 뛰고
영남이는 연 띄워요.

순옥이는 높이 뛰여 올라요
오르고 올라서 무얼 보나요
언니가 일하는 방직 공장 보지요.

바람 타고 높이 뜨는 영남이 연은
뜨고 또 떠서 무얼 보나요
형님이 일하시는 공장 굴뚝 보지요.

더욱 더 높이 떠서 무얼 보나요
헐벗고 굶주리는 불쌍한
남녘 땅 동무들을 보지요.

보고 싶은 순이 동무
보고 싶은 영철 동무
어찌하여 우리 함께 설 날을 못 즐기나.

남쪽 땅의 귀여운 내 동무들아
너희들은 들었으리
최고 인민 회의 편지 이야기를.

동무들아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
가시줄 쳐 놓고 으르렁 대는
미제 놈들 썩 물러가게.

평양시 종로 중학교
3 학년 현 상무

동요 자랑

최우등의 영예로
새 해를 맞은
나는요 기뻐요
참말로 자랑차요.

내 자랑 많자
마을 자랑 많아요
집집마다 쌀독차고
라디오 소리 재봉침 소리,

마을 자랑, 내 자랑
나라의 자랑이죠.
아버지는 천리마 작업반장이고요
나는요 《모범 분단》의 분단 위원장.

나는요 알아요
똑똑히 알아요,
이 행복 이 기쁨을
김 일성 원수님이 주신 것을.

나는요 설 날 아침
굳게 마음 다졌어요
올해에도 열심히 공부 잘하여
《모범 분단》의 영예 더욱 빛내겠다고.

함북 화대군 금성 인민학교
제 4 학년 최 극동

동요 수놓은 손수건

옥순이는 수를 놓네 꽃을 놓네
온 마음 다 담아 꽃 수를 놓네
겨울의 찬 바람 창문을 두다리는 이밤에,

숙제 공부 다 끝낸 옥순이
실 뽑아 모양 낸 하이얀 옥양목 우에
비단 실 호와가며 일'손 날리면
꽃 처럼 고운 순옥의 마음이 새겨지네.

일'손 잡으면 먼저 떠 오른다네
흥남 땅에 일어서는 세계에서도 제일 큰
비날론 공장 건설하는 아저씨들
조업을 앞당기려 이밤도 땀 흘리는 모습이.

비날론 공장 이야기 선생님께서 듣던 날
옥순인 작은 가슴 남 몰래 설레였다네.
오빠 만큼 컸으면 언니만큼 자랐으면
생각 끝에 결심 다졌네.

적은 마음 아저씨들의 힘에 보탬되라고
짬짬이 수를 놓는 손 수건
오리오리 비단 실오리엔 정성이 담뿍
래일엔 보낸다고 이 밤 마지막 수를 놓네.

맨 웃자리엔 나래치는 천리마를,
그 아래엔 향기 그윽한 꽃송이,
이렇게 우리도 어서 커서
천리마를 탄 건설자가 되겠다고요.

함남 영흥군 영흥읍
김 돌

음악 이야기

우리의 천리마 시대는 흥겨운 노래로 가득차 있다.

좋은 음악과 노래는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흥겹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북 돋아 준다.

—동무들아 준비하자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 부시고
용진 용진 나가세 기술스럽게
억천 만번 죽드래도 원쑤를 치자…

이 혁명 가요는 항일 빨찌산 시기 빨찌산 아저씨들이 부르면서 왜놈과 싸워 이긴 노래이지만 지금 우리가 불러도 얼마나 용기가 솟아 오르는가! 이 노래를 듣기만 해도 어떠한 원쑤라도 박차고 나갈 용기가 막 솟아 오른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노래를 사랑하며 많이 부른다.

소년단원들이 잘 부르는 《소년단 행진곡》은 민청의 교대자로 씩씩하게 자라는 조선 소년단원들의 자랑과 희망찬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수령님이 탄생하신 만경대를 노래한 《만경대를 찾아서》와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을 노래한 《대동 강》등은 모두 우리들이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들이다.

이와 같이 음악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항상 노래와 함께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한다.

그러면 음악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간단히 알아보자.

음악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성악 (목청으로 부르는 것) 작품과 기악 (악기로 연주하는 것) 작품으로 나뉘어 진다.

성악 작품에서는 유치반과 인민 학교 어린 동무들이 부르는 동요를 비롯해서 소년단원들이 부르는 소년 가요 그리고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이 부르는 군중 가요가 있다.

소년 가요에서도 행진 할 때 많이 부르는 《소년단 행진곡》, 《우리는 맹세한다》, 아동 혁명 가요인 《뻬오넬 가》 등은 행진곡으로 된 가요이다.

행진곡은 행진 할 때 발 맞추어 불러 나갈 수 있게 씩씩하게 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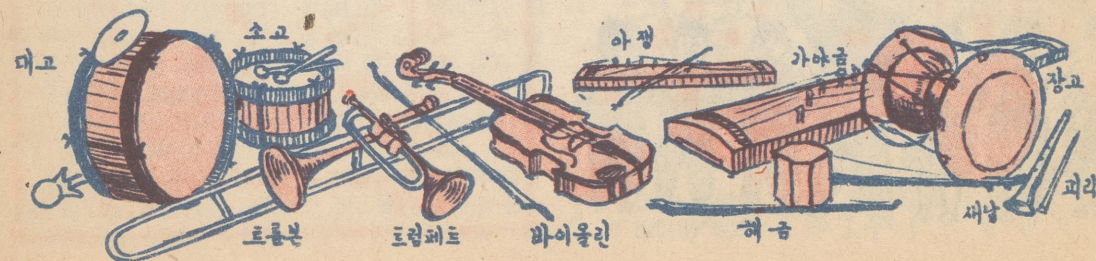
행진곡은 4 박자 혹은 2 박자로 되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서정적인 노래도 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동 강》, 《아름다운 우리 나라》,《우리 마을》등이 그런 노래이다. 이 노래들은 자기 고향과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것들이다.

중창 합창들도 있는 데 중창에서는 몇 사람들이 2부 혹은 3부의 성부로 나뉘여 함께 노래하는 것이다.

또 가야금 병창과 같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높은 칭찬을 받은 병창 종류가 있다. 가야금 병창은 장고의 가락에 맞추어 6명~8명이 함께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른다.

합창은 많은 인원들이 높은 음, 중간음, 낮은 음 등 2부, 3부, 4부로 성부를 갈라서 부르는 집단적인 노래이다. 합창은 웅장하고 폭이 넓다.

성악 작품에서 큰 것으로서 창극과 가극이 있다.

창극과 가극은 어떤 일정한 이야기를 가지고 극이 버려지면서 음악이 진행된다

우리 나라에서 창극은 500년 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해방후 더욱 발전하였다. 창극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 음악의 한 종류이다.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극은 창극과 비슷한 점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가극은 해방후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콩쥐 팥쥐》,《밀림아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다음은 기악 작품들에 대해 말해 보자,

우리 나라에는 오랜 옛날 부터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 젓대, 단소, 새납등 훌륭한 민족 악기들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해져 왔다.

우리 민족 악기의 종 수는 100 여 종에 달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 처럼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족 악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오랜 력사를 두고 음악을 사랑하며 발전시켜 왔는 가를 알 수 있다.

기악 작품으로서는 여러가지 독주곡, 중주곡이 있고 관현악 곡, 협주곡, 교향시, 교향곡등이 있다.

독주곡 (악기 하나를 가지고 연주 하는 것)에서도 여러가지가 있다.

례를 들면 젓대 독주곡, 바이올린 독주곡,

피아노 독주곡 등이다.

중주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악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성부로 혹은 같은 성부로 연주하는 것이다.

관현악은 여러가지 악기들이 합쳐서 연주 된다.

민족 관현악에서는 현악기 (줄을 통기여 소리를 내게 되여 있는 악기)로 된 거문고와 가야금, 해금, 소아쟁, 중아장, 대아장, 대금 등과, 야금, 조금, 평화금, 그리고 죽관악기 (피리처럼 속이 궁굴린 대나무로 만들어져 입으로 불어 소리 내는 것) 단소, 젓대, 퉁소, 피리, 대 피리등을 비롯하여 북, 징, 바과, 장고등이 합주에 참가한다. 이와 같이 관현악은 각종 악기를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게 된다.

민족 관현악엔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민족 관현악은 창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관현악에서는 민족 관현악 외에 현대 관현악이 있다. 현대 관현악도 많은 인원들로 이루어 지고 있다.

대체로 30명 정도로부터 70명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현대 관현악은 현악기인 바이올린, 배오라, 첼로, 콘트라바스등과 목관악기 (나무로 구멍을 뚫려 만든 것)인 후룻, 오보에, 크라리넷 화곳등과 금관 악기 (쇠로 만들어진 것)인 여러가지 종류의 나팔들과 타악기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것) 인 틴빠니, 대고, 소고등이 합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에서 대체로 음악이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1) 유희 조직

ㄱ) 이 놀음은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다.

ㄴ) 썰매 2개, 기'발대 1개, 끈 2,개 둥근 가락지 모양으로 된 큰 고리 (쇠줄 또는 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만든 것) 한개를 준비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ㄱ)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ㄴ) 각편 유희자들은 기'발을 가운데로 하고 량쪽으로 각각 15m 밖에 있는 출발선에 횡대로 마주 선다.

(3) 노는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따라 각 편의 맨 앞장에 선 사람 부터 차례로 썰매를 타고 출발 선을 떠나 가운데 고리가 놓여 있는 중심 원 까지 간다.

ㄴ) 중심 원 까지 먼저 도착 된 사람 부터 썰매에서 내려 고리 구멍으로 빠져 나와 다시 썰매를 타고 돌아 온다.

ㄷ) 출발선에 돌아 온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썰매를 내 주고 제 자리에 와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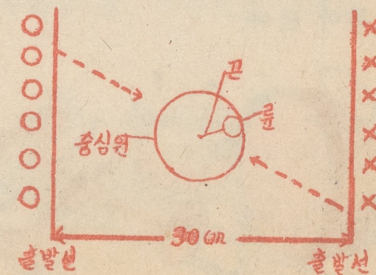
(4) 노는 데 주의 할 점.

ㄱ) 썰매를 타고 중심 원 안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

ㄴ) 고리를 빠져 나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던 상관 없다.

ㄷ) 딴 편의 동무가 기다리고 있어도 고리를 빠져 나온 사람은 고리를 원 밖으로 끌어다 놓아도 좋다.

ㄹ) 고리는 사람의 몸이 빠져 나올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적당한 고리'감이 없을 때는 끈으로 하여도 좋다.

공 작

스키 만들기

ㄱ. 스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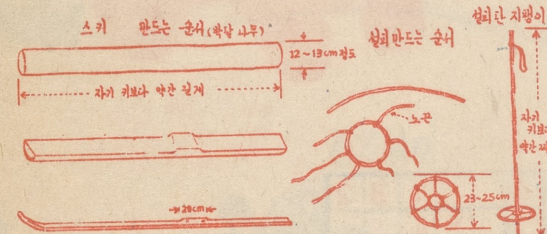
직경 12~13cm 정도의(약간 더 굵어도 좋다) 참나무, 박달나무를 자기 키 보다 좀 더 길게 끊고 그림 (ㄴ)과 같이 짜개고 그림 (ㄷ)와 같이 발에 맬 끈을 꿰는 구멍을 뚫는다.

다음에 그림(ㄹ)과 같이 량 끝을 깎아 내고 불에 쬐여 끝을 휜다.

다음에 마디를 다듬고 더 곱게 다듬는다.

ㄴ. 설피와 지팽이 만들기

설피는 그림 (ㅁ)과 같이 굵은 철사로 직경 23~25cm 정도의 원을 만들고 (굵은 칡 넌출이나 등나무로도 만든다) 아주 질긴 노끈으로 단단히 매여 설피를 만들고 이것을 참대 지팽이에 단단히 맨다. 이 설피 지팽이를 짚으면 지팽이가 눈 속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스키를 발에 매고 눈을 밀어 갈 수 있다. 설피 지팽이는 자기 키 보다 약간 짜르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타는 법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자, 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으며 정지, 진행, 회전들을 하지 못한다. 조금만 련습하면 아주 쉽게 탈 수 있다.

(위생 근위대원들에게 주는 자료)

겨울 철에 부주의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는 귀, 코'등 같은 데가 어는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나 귀는 몸의 다른 부분보다 흔히 내 놓고 다니는 수가 많고 또 이 부분은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살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젖은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는 피가 잘 돌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어는 수가 있습니다.

귀는 날이 찬 날 털모자나 귀거리가 없이 오래'동안 길을 걸거나, 또는 노는 재미에만 정신을 팔다나면 어느새 어는 지도 모르게 얼어서 나중에 집에 돌아 와 귀가 부풀어 올라서야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운 날 밖에서 오래 놀거나 길을 걸을 때에는 피가 잘 돌도록 귀와 손을 가끔 비비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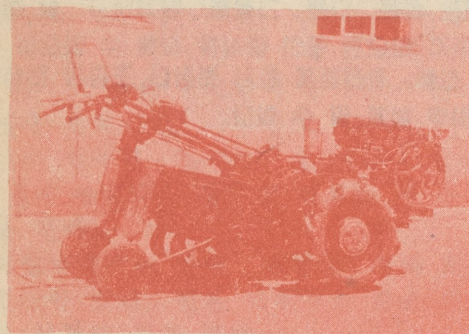
그러나 만약 부주의로 해서 손발이나 귀, 코'등 같은 데가 얼었을 때에는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피가 잘 돌도록 그 부분을 비벼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문지른다든가 더러운 손으로 비벼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알콜로 적신 솜으로 문지르고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비빕니다. 그리하여 피가 잘 돌게 된 다음 부터는 세게 비빕니다. 알콜 솜이 없을 때는 깨끗한 손으로 비벼도 좋습니다. 더운 데다 녹인다고 하면서 언 손을 갑자기 더운 물에 놓으면 안 됩니다. 대체로 섭시 18도에서 부터 차차 더운 물 (섭시 37도 가량)에 놓어서 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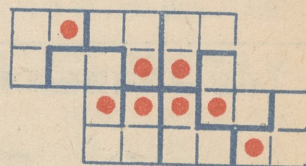
그러나 심하게 얼었을 때는 곧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 호 현상 문제

아래의 기계는 어느 공장에서 언제 만들어 냈으며 어떤 일을 합니까?
아는 데 까지 설명해 보십시요.

현상 문제 당선자 (1960년 10호)

평남도 안주군 송학 중학교	탁 명호
황북도 사리원시 구룡 중학교	박 승옥
함남도 홍상군 홍상 중학교	리 승춘
함북도 회령군 궁심 중학교	김 대성
함남도 홍원군 신양 중학교	손 광욱
평남도 중화군 마장 중학교	양 성봉
평북도 피현군 동서 중학교	백 진일
황남도 강령군 하부포 중학교	김 복히

현상 문제 당선자 (1960년 11 호)

평양시 대흥 중학교	지 수용
평남도 온천군 서화 중학교	김 성대
함남도 허천군 만덕 중학교	김 봉협
개성시 고려 중학교	유 창호
황남도 태탄군 태탄 중학교	구 태서
함북도 어랑군 어대진 중학교	최 익
황북도 토산군 석봉 중학교	리 정준
량강도 운흥군 운흥 중학교	리 정숙
량강도 풍서군 석후 인민 학교	리 하률
강원도 통천군 송전 중학교	김 영수
자강도 중강군 호하 중학교	한 원형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1 호 (총13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737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7개년 계획의 첫 해인 금년도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증산과 절약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 할 것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우리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 떨쳐나선 근로자 아저씨들의 뒤를 따라 우리 소년단원들도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는 일에 나섭시다.

우리들이 매일 쓰고 있는 학교의 책상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학용품을 아껴쓰며 학교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며 파고무, 파유리, 파지, 가위'밥, 구리, 전구, 소털, 공병 등을 모으는 일을 통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데 한 사람 같이 나섭시다.

Цгх 1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 1-12 8248

8248 Сонендан